

제 5장 민간복지의 출현

- 이 장에서는 영국의 19세기 자유주의 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인식되고 치유책으로서 제시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함.

I.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 의무의 부정

- 자유주의자들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빈곤이란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한 생활이 낳은 결과이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빈곤자 그 자신에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
- 신 빈민법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빈곤대책으로서 이는 빈민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와는 관계없는 법이었음. 빈민집단과 국가 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치안의 문제 등 국가 사회의 질서유지에 위협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만 될 과제인데, 그 해결책은 되도록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질서의 유지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었음. 신빈민법이 원칙으로 내세운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진영의 빈곤 철학과 빈곤의 대책을 잘 알수 있다.

II. 민간 사회 차원의 빈곤문제 해결 노력: 민간 사회복지의 출현

- 존슨에 의하면 민간 사회복지란 정부가 아닌 민간 수준의 자발적인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운영은 자발성이 보장되고 재원은 적어도 일부는 민간 재원으로 조달되며 조직의 목적은 비영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III. 자유주의 빈곤정책의 성립 배경

-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한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사회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러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19세기 초반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였다. 그러나 자유방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19세기 중반이후 영국 사회의 모습은 평등, 빈곤집단의 소수화와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예컨대 런던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빈민집단이 발생하여 이스트 엔드(East end) 지역은 거대한 슬럼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 생활은 극도로 열악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 빈민들의 생활이 사회조사나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자유주의 사회의 최대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IV. 빈민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

- 빈민법이 빈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진영 내에 각각 상이한 주장들이 존재하였지만 실제로 신빈민법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수그러들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빈민집단의 규모와 이들 생활의 저소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민간 조직들의 개입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자선조직협회 활동(COS),(박광준, 161-169) 2)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박광준 169-177) 등이다.

V. 19세기 민간복지의 현대적 의의

- 빈곤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여 왔고 특히나 19세기 영국 사회에 있어서는 신빈민법과 COS, 인보사업 등 민간조직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줄 몰랐다. 이 당시 민간조직들의 활동은 그 기본정신이 시민정신으로서 이는 종교적 동기에 기초한 전근대적 성격의 자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시민정신에 의한 민간 사회복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Service for the strangers)”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세기 자유주의 사회의 민간 조직의 빈곤노력은 현대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 조직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ocial services)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기간 동안 영국에서 시작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부까지 미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 들어 이화여대, 중앙신학교에 이어 서울 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전문 사회복지(사업)교육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미국에서 발달한 민간 사회복지 사업 방법론이 대학의 강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실천기술로 자리잡기에 이르렀고, 1945년 조국의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활동이 급격히 증가된 수많은 (해외 원조) 민간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활동의 기본 가치이자 실천기술로 자리잡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이혜경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